**레위기 (Leviticus)** 10/13/19 ed.

**제목과 배경**: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번째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 지파에 관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성막에서의 예배와 제사에 관한 지시사항(율법)으로서,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이 다른 레위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 시행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있는 동안, 즉 40년 광야 생활 중 한 달에 걸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40:2, 17 및 민수기1:1 참고).

**주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1:44-45, 19:2).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성결(거룩)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내려오사 그들 중에 거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긴장과 죽음의 위험이 초래되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방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로워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은 ‘육체적, 물리적 완전’을 의미했으므로, 불완전한 사람은 모두 진(하나님의 처소를 상징)으로부터 쫓겨나야 했고 그들을 검사하는 제사장으로부터 흠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율법에 따라 온전한 희생을 드린 후에만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3장24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6; 이사야 49:6; 베드로전서2:5, 9). 레위기 16-17장은 제사법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많은 예물의 주 기능은 속죄와 예배입니다.

**개요**

1. 예배 (1-16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 희생제물 (1-7)

나. 제사장 성결 (8-10)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11-15)

라. 속죄일 (16)

2. 성결(거룩, 17-27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 피와 예배 (17)

바. 백성을 위한 규례 (18-20)

사. 제사장을 위한 규례 (21-22)

아. 절기 (23)

자. 제사장과 백성에 대한 추가 규례 (24)

차. 토지 규례 (25)

카. 축복과 저주 (26)

타. 십일조와 서원에 대한 규례 (27)